

# “놀면서 배우는 지속가능한 미래”...남구 어울림마당 성료



몸으로 말하는 SDGs 부스 운영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 유안근린공원에서 ‘남구 청소년의 날’ 행사 개최

### SDGs 주제 체험·공연 등 청소년 주도 프로그램 풍성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남구가 지원하고 광주광역시봉선청소년문화의집과 남구청소년수련관이 공동주관하여 진행한 <남구청소년어울림마당 ‘PLAY SDGs On: 모두함께, 지금’>이 지난 5월 30일(토) 유안근린공원에서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 300여 명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 남구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지정된 ‘청소년의 날’에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축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단순한 이론으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놀이와 체험 형태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주체적인 시민성을 발휘했다.

행사는 총 4개의 테마 공간으로 구성되어 청소년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호흡하는 열린 축제로 운영됐다. 먼저 복지·건강·평등을 주제로 한 ‘모두함께-이음’ 공간에서는 몸으로 표현하는 SDGs 게임과 친환경 쉼에센스 만들기 부스가 운영되어 눈길을 끌었다.

책임 있는 소비와 자원 절약의 가치를 다룬 ‘모두함께-지금’ 공간에서는 못난이 마카롱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주민들에게 가치 소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또한 청소년들의 경제와 자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모두함께-가치’ 공간에서는 청소년 경제·봉사 동아리 ‘코코팜’가 직접 기획한 ‘판을 뒤집는 경제퀴즈 빙고’ 부스를 통해 올바른 소비 습

관을 유쾌하게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현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모두함께-쇼’ 공연무대에서는 청소년 댄스동아리 ‘플렉시(Flexcy)’가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와 더불어 공동 주관기관인 남구청소년수련관은 탐꾸로 만드는 미래, 페이스페인팅, 내 손안에 기후행동 등 다채로운 친환경·미래지향적 체험 부스를 운영해 풍성함을 더했다. 광주남부경찰서 역시 현장을 찾아 지문인식 체험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

/이문수기자

# 300석 전석 매진...‘서구 청소년의 날’ 성황

## 청소년 주도형 축제, 11개 동아리 무대 전석 매진 속 디제잉 파티로 성황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관내 청소년 기관(서구청소년수련관, 삼촌청소년문화의집, 서구청소년문화의집)이 지난 23일 개최한 제 3회 서구 청소년의 날 기념 청소년 동아리 콘서트 ‘The 빛날 Day’가 300석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서구 관내 청소년 기관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들의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서구는 지난 2024년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

해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서구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다.

올해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사전투표 일정으로 인해 기념행사를 일주일 앞당겨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객석을 가득 채우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기획부터 진행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주도형 축제’로 꾸며져 의미를 더했다. 청소년 MC의 매끄러운 진행 아래, 관내 11개 청소년 동아리가 무대에 올라 밴드, 댄스, 난타 등 그동안 갖고있던 다채로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했다. 또한 기념식

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는 모범 청소년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어 행사의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디제잉 파티’였다.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즐긴 청소년들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되어 축제를 만끽했다.

행사의 진행을 맡은 청소년MC는 “서구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는 큰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직접 축제를 이끌어갈 수 있어서 무척 설렘”이라며 “어른들이 만들어 준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과 디제잉 파티로 친구들이 다 함께 스트레스를 날리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현숙 행복교육과장은 “일정

변경 등의 변수 속에서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인공은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서구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언제 어디서나 ‘더 반짝이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청소년이 기획과 진행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으며, 관내 11개 동아리가 밴드·댄스·난타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모범 청소년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이 함께 진행돼 지역 청소년 성장과 지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다.

마지막 디제잉 파티에서는 청소년들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음악을 함께 즐기며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가영기자



청소년들이 밴드·댄스·난타 공연을 선보이며 무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제공

